

한기총 해체바람거세, 교단, 단체들 탈퇴 이어져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기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돈의 맛을 알게 되면 무섭다. 그것은 독약이다

한국교회에 불필요악인 한기총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번 월드컵이 탈퇴를 선언한 후 두 번째로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이성희)도 한기총을 탈퇴를 결정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0년 간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다"면서 "그동안 장기기증자를 발굴하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를 돕는 일에 여러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했으며 특히,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이런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의미에서 지난 200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본부는 장기기증운동에만 전심을 다하고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정정섭 회장)도 한기총에 행정 보

류를 신청하고 탈퇴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기총을 탈퇴해달라는 한 후원자의 공식 질문에 기아대책 관계자는 "기독교 NGO로서 수년 전 한기총 회원이 됐다"며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행정보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홈페이지 Q&A게시판에 밝혔다.

한편, 한기총 해체 공식 블로그(<http://cdout.istory.com/61>)에 따르면 예정통합 경북노회(4월 5일), 경인노회(4월 6일), 예장고신 남서울노회(4월 11일), 경북노회(4월 12일) 등이 소속 교단의 한기총 탈퇴를 요청하는 헌의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장고신총회는 올 가을 총회에 서 한기총 탈퇴를 결정지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 11일 오후 종로5가 연동교회에서 가진 '예장 목회자 참회 기도회와 공청회' 자리에서 김형태 목사(연동교회 원로목사, 예장

통합 전 총회장)는 한기총에 대한 예정통합 교단의 입장을 밝히고 설교 말미에 "(통합측)증경총회장들이 모였을 때 처음으로 한기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운을 떼고 "한기총의 더러운 탐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째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들었다. 한기총이 타락한 것은 돈 선거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 국무총리나 장관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대표회장은 청와대가서 대통령과 인사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목사의 허파에 바람 드는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기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돈의 맛을 알게 되면 무섭다. 그것은 독약이다.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다. 또 권력을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 통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형태 목사는 이광선 목사를 교단 대표로 여기고 선거운동을 해왔더니 결국 합동

교의 교단 사임이 됐다며 일 교단은 한기총을 탈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목사는 "목회자들은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세상을 사랑해서 목회자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에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온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목회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야만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교 후 이경원 목사(인창교회)가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김승민 목사(분당남부교회)는 '한기총 지도자의 회개를 위하여', 김정은 목사(광덕교회)는 '참 목회자 상을 위한 참회'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교계 많은 단체장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길지연 목사

측과 이광선 목사측 등을 싸잡아 실랑이를 금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가 고집만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한기총을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가 제 정립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를 모르고 자신만이 한국 교회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듯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리교가 세상법정 삼질로 인해 결국 변호사가 한국 교회 최초로 감독대행을 초래했는데, 한국 기독교 대표기관이란 한기총이 평신도인 변호사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대행을 집행하고 있으니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은 평신도 아래 기관으로 전락되었다며 속히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순봉호 교수는 한기총은 하나님의 원수이다,라며 부산에서 한기총 해체를 위한 초청 강연회에서 시종 일관 단호한 어조로 한기총의 불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피력한 바 있다.

■사설

‘살아남은 것들 remnents’이 맞이하는 봄

아프고 춥고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중심인 4월이다. 봄은 혹독한 계절,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들이 맞이하는 계절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매년 봄이 되면,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의 '25시'가 생각난다. 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포로로 잡혀 수많은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마지막 까지 살아남은 시켜말게 '불타다 남은 그루터기' 요한 모리츠 가족이 떠오른다.

당대의 지성이며 시인인 '프라얀 코루카'와 당시 암흑세계를 종교적인 인간구원을 꿈꾸며 신을 향한 신명을 가지고, 열정적 삶을 살았던 목사 '알렉산더 코루카' 가족은 전쟁터에서 순교하고 만다.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히틀러의 독일이 무너질 때까지 13년을 수십 개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불타다 남은 그루터기' 상처투성이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무식한 농부 '요한 모리츠' 가족이다. 작가 게오르규는 인간의 시간이 끝나버린 종말론적인 이 시대, 하나님의 때, 카이로의 시간 '25시'에, '남은 자'의 역사,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 신학을 말하고 있다.

이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역사의 증언자요, 한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요, 노아의 여덟 가족처럼, 새로운 역사를 위한 씨앗이며, 새 역사의 농사꾼이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국을 이루었고, 기고만강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아시아를 휩쓸었던, 지난날

과거의 패권주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성들은 참혹한 천재지변을 만나 수만 명이 죽고,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역사를 기록하고 끝고 가야 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독도가 저희 것이라고 정신 나간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은 자민당 정권, 지난날 전쟁을 일으켰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주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이나 역사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희망이 없다. 유대인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지언정 뒤돌아보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세를 따라 나온 2백만의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뒤돌아보며 버리고 떠난 애굽에 집착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간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경주마에게 가면을(차안 대, 귀마개) 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뒤편 얼굴 보지 말고, 앞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라는 의미이다. 잔인한 4월 새봄이 왔다.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의 봄이다. 새 역사의 봄에 살아남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역사의 증인으로, 새로운 종자로, 새 농사를 지어야 할 농사꾼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지난날 겨울, 지난날 역사는 기억하고, 기념할지언정 집착하지 말자. 앞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광명시 14지구 조합장 “너 XX년 죽을래” 여성목사 폭행

이성희 조합장(광명 14지구)이 생명생교회 박영자 목사(여)를 교회로 찾아와 협박과 고성으로 목을 틀어쥐고, 꺾어 돌려서 바닥에 내동치지는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 신도시, 보급자리 지역 주민들과 종교시민사회 40여개의 단체가 연대한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국민운동>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생명생교회 여성목회자 박영자 목사를 폭행한 광명14구역 이성희 조합장의 민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생교회 박영자 담임목사(여)는 지난 4월 6일 오전 9:30 경기도 광명시 광명14구역 조합장

이성희와 통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조합장과 이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시공사편을 드는 처신이 옳지 않다는 충고의 전화를 한 후 오전 9:50분 경 이성희 조합장과 조합이사 1명을 대동하고 교회로 찾아와 조합이사는 피신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고 조합장은 박 목사에게 달려들며 “너 XX년 죽을래”라며 고성을 지르며 목을 틀어쥐고 수차례 흔들고 돌려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두 손으로 목을 꺾어 돌려서 바닥에 내동치져 크게 다친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이에 본 운동본부는 이성희

조합장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광명성에 병원(광명시 철산3동 389번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산하단체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나눔과기쁨 상임대표) 공동대표 강시근 장로(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집행위원 김유순 총무(부천재개발대책위원회) 하다니엘 목사(한기총재개발대책특위) 등 각 30여 단체 실무자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가 이를 항의하며 강력 규탄하고 성명서를 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명시 14구역 재개발 조합장 이성희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게다가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어난 철거 용역강제들의 횡포와 시공사의 사기행위와 지자체의 방관에 분노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관계 당국의 엄정한 집행을 강력 요구한다. 2011년 4월 12일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국민운동 참여단체 일동,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절)



총회장
성홍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기
김준택 목사
(은전교회)



부서기
장창윤 목사
(열린찬양교회)



회의록/서기
이기석 목사
(한성교회)



부회의록/서기
고인창 목사
(대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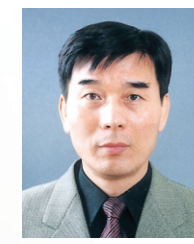
회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정일량 목사
(향기로문교회)



감사
이일은 목사
(성문교회)



감사
전현구 목사
(온누리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총무
신인창 목사
(성암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6-7, 팩스 02)835-2608

연락처 : 총무 010-8602-3009 서기 010-4166-2307
 홈페이지 <http://ws21.onmam.ccom>

서울혜화경찰서,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과 인물사진 찍어드려

서울혜화경찰서(서장 정승호 총경)는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0일(수) 오전 10시~17시까지 종로구 종묘공원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건너기 등 교통안전체험교육과 병행하여 참가자에게 인물사진을 무료로 촬영하여 드리는 맞춤형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는 2000년 10,236명 이던 것이 2010년 5,505명으로 10년간 대폭 감소하였으나 65세 노인인 1,593명에서 1,75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노인 교통사고 2,581건 발생 / 1,753명 사망 / 27,295명 부상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는 노인층의 사회적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현장 노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정신적, 신체적 노화에 의한 교통상황 적응성과 위험 감수성의 저하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노인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정 등을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왔으나, 이번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횡단보도 건너기」등 교통상황 적응요령과「밝은 옷 입기」,「교통사고 현장사진 전 시」,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엔「인물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드린다는 약속에 참여율을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혜화경찰서



혜화경찰서

를 비롯한 경찰신우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종로5가 파고다스튜디오(대표 유경선 장로), 현대그룹, 한국bp CJTN방송 저지스티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세계로교회 설립53주년 맞아 임직식 가져

정병관 목사는 12제지비전으로 로교회 설립 53주년을 맞아 본당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 세계에서 이를 기념하여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지난 26일(토)오후 2시 거행했다.

당회장 정병관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노회장 이상권 목사(신성교회)는「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세계로교회 정병관 목사는 2인의 장로, 3인의 집사, 3인의 권

사가 은퇴식을 가졌다. 이어 2인의 장로, 1인의 취임집사, 13인의 안수집사, 29인의 권사를 각각 임직시켰다. 이어 권면과 축사가 있은 후 예불 증정이 있었으며, 대표 박영길 장로의 답사와 고이규 장로가 광고를, 총회장 김삼봉 목사(대한교회)축도로 마쳤다.



세계로교회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론: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한기여총 청량리에 임시 이전예배 드려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 회장 권영자 목사)는 지난 28일(월)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사무실을 임시 이전하고 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가졌다.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박은혜 목사(분회 부총재)가 기도를, 박흥례 목사(의전 실무회장)가 고전 10:1-5절을 봉독하고,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책임 있는 존재로서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 목사는 한기여총에 속한 우

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감당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또한 권 대표회장은 한기여총이 설립 된지 오는 11월이면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허영희 목사(부총재)축도로 마쳤다.



한기여총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6,20일 예정대신 50주년 기념대회, 새중앙교회에서 예정

4월 학술대회, 5월 20만 전도운동, 6월 50주년 기념대회로 전력구상을

오는 6월 20일 새중앙교회에서 50주년 기념대회를 앞 두고, 지난 4일 오전 11시 새중앙교회(박종식 목사)에서 대신총회 50주년 기념대회(대회장 박재열 목사, 준비위원장 강경원 목사)를 위한 제 1차 준비 기도회로 모임을 가졌다. 이번 기념대회는 5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교단이 거대교단으로 하나가 되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기도회는 총회 임원회, 대신50주년 영성분과위원회, 대신부흥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1부 예배, 2부 기도회, 3부 축하, 순으로 개회했다.

총회서기 조길춘 목사(호산나교회)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강경원 목사(예일교회)는 행 26:24-29 본문으로 'Visionary'라는 주제

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기획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준비경과보고에서 대신교단 43개 노회와 세계 각지 권역별 선교사, 군선교사역자들, 농어촌특수 목회자 등 대신의 목회자 및 신학생을 초청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대신교단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이며, 대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며 그것을 각인시킬 행사가 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총회총무 최충하 목사는 기념대회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념대회와, 총회회관 구입을, 교단 발전을, 총회 신학교와 후학을, 1만 교회 500만 전도운동 등, 총 7가지의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진 3부 축하에는 직전



예정대신총회 총회장 박재열 목사

총회장 김명규 목사(은평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으며, 한국교회신보 사장 정승욱 장로, 대신부흥사회 지도위원 조나단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대신총회는 4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와 5월에 열리는 20만 전도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6월 기념대회를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세부협 제2기 부흥사 연수 연합성회

2011 연합성회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

세계 주영광 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이재원 목사)는「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주제로 경북 김천시 어포면 은거리 소재 김천 예수원(박길찬 목사)에서 지난 14일(월)~17일(목)밤까지 세부협 연합회 및 제2기 부흥사 연수 세미나를 가졌다.

세부협은「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는 말씀으로「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자는 취지 아래 세계 주영광 부흥사협의회가 2005년에 발족되어 부흥사의 비전을 가진 사역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번 부흥사 연수교육 세미나는 전국에 있는 부흥사들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로 재충전을 목적으로 모였다. 첫날 데이비드 김 목사 사회로 찬양이 있었으며, 막16:5절을 인용「주님의 지상명령」이란 제하의 말씀을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가 선포했다. 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아침 예배인도를 안병창 목사, 조봉수 목사, 조현희 목사 등이 맡았으며, 제1강부터 6강까지「바람직한 부흥사 상」을 부총재 박길찬 목사,「부흥설교 및 작성법」에 대해 이준동 목사,「한국교회 부흥운동사」를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부



세주부협 김천예수원에서 집회

흥사의 주소와 나아갈 길」에 대해 데이비드 김 목사,「부흥사의 사명과 역할」을 JTNTV방송 저지스티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설교 전달기술」에 대해 광영민 목사(사무총장) 등이다. 총재 이재갑 목사는「하늘 문이 열리는 묵회」계3:7~13,「사명자의 축복」딤후 2:3~6,「부활의 소망」고전 15:38~44절 말씀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했다. 3박4일간의 제2기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지의 주재와 평가를 갖고 수료증을 전달하고 축사와 격려로서 연합성회 및 제2기 연수교육 세미나를 마쳤다.

축 부 활

예수 다시 사셨네~

등불교회 ·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세상을 밝혀주는 교회 인생을 밝혀주는 교회

2011년 표어: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해!

“예수능력 영성회복치유 성회”
매주 목요일 밤 7:30

주 강사: 광영민 목사
강사: 세 · 주 · 부 · 협 부흥사님들

예배 및 모임 안내				
장년 부			학생 · 청년 부	
예배	주일오전	오전 11:00	어린이	오전 9:00
	주일오후	오전 2:00	학생부	오전 11:00
기도회	수요일	밤 7:30	청년부	오전 11:00
	금요일	밤 9:00	학생목장	오전 3:00(토)
목장	매일	밤 9:00	청년목장	밤 7:00(토)
	금요일	오전 11:00	기타모임	
불광사 양육: 주일 오후 4:00				
세기복양육: 금요일 오후 2:00				
전도모임: (화) 오후 12:30 차 나눔				
(토) 오후 2:00 관계전도				
우리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등불교회!				

담임목사 : 광 영 민

교 회: 402-011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1·3동 441-45

☎ 032-891-0651, 010-2080-0651

e-mail: kdp0920@nate.com

홈페이지: http://kmission.onmam.com

부활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대표 회장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전 5:00
수요일	오전 7:30
금요일	오전 7:30

담임 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자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리교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



부흥재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전 2:00
수요일	오전 7:30
금요일	오전 9:00

담임 목사 : 김 호 준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역 총회



상임 회장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국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재건 동대구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공동 회장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전 1:40
수요일 밤	오전 7:30
금요일 밤	오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 수 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파밀시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원지 하차 옆)
☎ 053-752-8238, 011-9537-8291
e-mail: boos7@hanmail.net

광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보수총회 신학 연구원
백성 목회대학원 목회전문과정 졸업
13년간 부교역자로 사역
WMD(CDI)노도라 세계 선교와 사후총정 역임
백성 목회 총무 및 2대 회장 역임
보수총회 부흥사협의회 사기 및 회계 역임
경인부흥(합의회) 사후처장 역임
한국교회 영성개발 부흥사협의회 사후처장 역임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사후총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협의회 상임장 및 사후총장
백성총회 영성회 소속
(예 · 장동복교회 개척 및 타인
예수능력 치유센터 설립 및 회장
온누리교회 2대 회장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회 일정

4월
· 목요일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성회 / 매주(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등불교회)
· 17(월) 주(서울)성신교회(담임 김경림 목사) 1일 성회 인도
· 18(월)-2(수) (강천)예수능력치유 박길찬 목사 성회 인도
5월
· 목요일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성회 / 매주(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등불교회)
· 1(일) 주(광명)부활교회(담임 이재원 목사) 헌신예배 인도
· 2(월)-5(목) 인천제철초 기도원(원장 김주환 목사) 성회 인도
· 18(월)-19(목) (강천)예수능력치유 박길찬 목사 성회 인도

세계 주 영광 부흥사 협의회와 함께하실 부흥사를 모집합니다.

http://wlgra.onmam.com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를 쳐보세요.

효성중앙교회 54주년 및 장로 은퇴찬하 예배드려



은퇴장로 가족들과 함께 정연수 목사(중앙)



효성중앙교회 정연수 담임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담임 정연수 목사)는 1957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효성동)에 본 교회를 창립하여 지난 10일(주일) 5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54주년을 맞은 효성중앙교회는 오후 3시 본교 레인보우 비전홀에서 담임 정연수 목사 집례로 김윤한 장로, 이용선 장로의 은퇴찬하예배가 시작되어 이강수 장로가 기도를, 살롬찬양

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인천북지방 이용근 감리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인용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동영상을 통해 감동한 장로, 이용선 장로의 인사 및 소개가 있었으며, 담임 정연수 목사는 두 은퇴 장로의 약력소개와 업적과 공로를 높이 치하했다. 아울러 이용근 감리사는 두 장로를 인천북지방회 효성중앙교회에서 은퇴되었음을 선언했다. 또한 담

임 정연수 목사는 두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화동과 회중들의 꽃다발 전달과 축하가 이어졌으며, 이봉희 목사(본 교회 4대 목사)가 두 은퇴 장로와 교인에게 부락의 말씀을 전했다.

김윤한 장로, 이용선 장로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윤한 장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면서 매 말라가는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의

제단과 우리의 마음 밭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내려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용선 장로는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생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찬하예배를 드리면서 일선에서는 몰라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헌신을 다할 것이며 교회를 섬기며 위해서 봉사 생활에 헌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연수 담임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두 은퇴 장로를 격려와 위로로서 특별찬양에 나섰으며, 송주범 목사(5대 담임목사) 축도로 은퇴찬하예배를 마쳤다.

“친북좌파세력 척결을 위하여 힘쓰겠다”

박복우 목사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제3대 총재 취임

“친북좌파세력 척결하여 국민 통합 이룩하자”는 취지아래 4월 8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부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취임감사예배를 드려지고, 2부 총재 추대 및 대표회장 취임에는 박복우 목사(세계중앙교회)가 본회본부 총재로 취임하고, 변관능 목사(홍신관능교회)가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가졌다. 또한 3부에서는 조갑제 대표를 초청 “핵 무장해야 통일과 평화 온다”는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총재 박복우 목사는 “대한민국의 수호와 변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친북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며 조국 수호와 변명을 위해 한해 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무너진 교원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친북좌파 정치 집단을 척결하며, 국민통합과 선

진화운동, 보수 우파세력 연합운동, 북한의 인권개선 운동과 탈북자 재교육 사업, 청년 보수세력 육성 등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예배는 주호일 본부장의 사회로 김성광 목사(강남교회)가 ‘통치의 세가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박천일 목사(전 한기총 총무), 송일현 목사(한기부 총사임본부장), 봉태홍 대표(라이프코리아) 등이 축사를, 이상훈 회장(전 국방부장관), 김갑자 회장(대한민국 사랑회), 서정갑 본부장(국민행동본부) 등이 찾아 격려사를 전했다.



대표총재 박복우 목사

예장(웨신총회) 대한노회 제6회 춘계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는 4월 11일(월)오전1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시무)에서 제6회 춘계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예배와 성찬식을 갖고 제6회 춘계정기노회 회부처리를 개회했다.

서기 박민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박축복 목사가 기도를 하고, 회계 유운주 목사는 성경 사49:15-16 요.20:16절을 봉독하고 특별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총회장 성홍경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가 대한노회를 방문하여 성 노회를 축하

목사의 기도와 서기 박민규 목사가 회원점령을 한 결과 회원과 반수이상을 보고하자 노회장은 성원으로 됨으로 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했다. 이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속회되어 각 부 보고와 안건토의를 거쳐 노회

장 장한국 목사 축도로 성노회를 마쳤다.



말씀을 전하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



윤기순 목사 박사학위(Ph.D)영득감사예배

구로중앙교회 담임 윤기순 목사는 26일 낮 12시30분 구로동 베스트웨스턴 호텔 2층에서 박사학위(Ph.D)취득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울중부지방회장 유선호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김영복 장로(창신교회)가 기도를, 조남영 목사(서울중부지방부회장)가 계시록 3:10-13절을 봉독하고, 구로중앙교회 임마누엘중앙단의 찬양이 있었으며, 성결교 증경총회장 조병창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경철청교경협의회장 김재송 목사 사회로 2부 축하순서로는 김금운 목사(마포제일교회)가 축하식 기도를, 윤석용 목사(인천지방회장)는 학위논문 평을, 조병창 목사, 김재송 목사, 조석환 이사장은 가운착의식을, 성결대학교총동문회, 서울중부지방회는 박사학위패 증정을, 오희동 목사(증경총회장), 노태철 목사(증경총회장), 21C성결선교회 대표회장 백병도 목사, 이후호 장로(원로장로회장), 서울시 이 성(구로구청장)이 각각 축사를, 송재석 목사(증경총회장), 공재갑 목사(영은교회 원로), 조원길 목사(강석교회 당회장), 최귀수 목사(예성교단 총

무), 이종훈 장로(성결신문사장), 조석환 장로(성결대이사장)가 각각 격려사를, 권면에는 전유성 목사(온수중앙교회), 나세웅 목사(신림동중앙교회), 송덕준 목사(독일교회) 등이다.

이어 박수경 교수가 축하를, 감사 및 인사에 윤기순 목사(구로중앙교회)가 나섰으며, 김소암 목사(증경총회장)축도로 마쳤다.

이날 윤기순 목사는 담사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하에 나선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목회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학위를 통하여 더욱더 저의 목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심전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윤 목사는 한영신학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영득했다. 논문으로 는 “훈련된 선교사의 전략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목사는 논문을 도서출판 목양에서 약 227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출간해 선보였다. 저서의 목적은 사도바울의 선교



구로중앙성결교회 기념촬영

전략 중에서 “훈련된 선교사의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사도바울의 “훈련된 선교사역의 전략”을 활용하고 적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훈련된 선교사”들을 세계 도처에 파송하여 21세기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서 세계 선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제 2위의 선교국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선교이론 교육의 결핍, 선교전략, 지역교회와 선교회와의 비협력적인 문제, 선교사 후원과 관리 그리고 선교행정과 정책 등 선교에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잘 준비되고 “훈련된 양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이

러한 문제는 21세기의 한국교회 선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도바울은 영적으로, 타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21세기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사도바울처럼 “훈련된 선교사”들로 양성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다 위대한 선교과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윤 목사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M.Div.)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M.A.)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육군 군목 대위 전역하고, 1987년~현재 서울 구로중앙교회 담임하고 있으며, 성결대학교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피종진 목사 4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86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33(목~토) 서울 행복비전교회(천준협 목사) ☎02595-0675
3(주) 오후 부전 행복교회(이화영 목사) ☎03244-3313
4(월) 오후 미국 Henderson 대학교 목회대학원(총장 Dr. Baik, 회장 피종진 목사) 한국지역 목회연구세미나
4(월)~6(수) 서울 강남 소망교회(연애애 목사) ☎02573-7797
7(목) 저녁 서울 한미음교회(임미향 목사) ☎010-6301-8374
8(금)~10(주) 파주 영광교회(고정봉 목사) ☎031943-5471
10(주) 오후 인천 엘린교회(이명정 목사) ☎010-8228-5350
11(월) 오후 한국기독교교육학자연구회(한재민 목사) ☎032668-3191
11(월)~13(수) 인천 진평교회(이시무열 목사) ☎032511-6911
14(목)~16(토) 부전 세계자유선교센터(원장 민종만 목사) ☎032329-9182
16(토) 오후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18(월)~21(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석 목사) ☎022683-4202
21(목) 오후 세계성령부흥사(연수원(원장 조 훈 목사) ☎02474-7801
22(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환영회(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서울역광장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장 박종철 목사) 주최: 한국선교연합회
25(월) 오전 서울 아성부흥아카데미(원장 박태희 목사) ☎010-9963-4966
25(월) 오후 오산교회(장로) 기념식기도원(원장 김원길 목사) ☎031947-0091
25(월) 오후 서울 Health교회(임규영 목사) ☎011-9989-8639
28(목)~5(일) 미국(U.S.A) 신평 엘린교회(차영창 목사) ☎704849-2661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될지이다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동과 부흥을 하옵소서
감정의 성도 - 감정의 영감 - 감정의 물질 - 감정의 충성 - 감정의 선교

장 로 : 박광순, 김해자
강도사 : 김성민
전도사 : 오정순, 임시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축 부 활

담임목사 정대성 목사 선교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과 영적으로 지지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는 축복성회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 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 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 9:00
축복성회 매주금 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축 부 활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시름**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선양**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능주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WA영재교회 오후 1:00(토)
알파과정 오후6(주일) 중 · 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러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영동로49번지 양우로123번지
Tel : 02)378-9399
신앙상담 : 010-2378-9399
http://www.반석교회.net

찾아오시는 길

역대 신촌역 동부 길잡이
역대 신촌역 동부 길잡이
역대 신촌역 동부 길잡이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시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찬양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오정오 목사! 돈 주고받는 목회자의 양심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

한복협, 월례 기도회와 발표회.. 한국 교회의 갱신과 자정 노력 강조

림인식 목사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는 사람 사랑을 첫째로 하는 목회를 하여야 한다’ 고 강조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8일 오전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갖고 한국 교회의 갈등,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은 특히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하여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오정호 목사(대전 세로남교회 담임목사),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목사) 등이 발표를 맡았으며 20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 자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픔의 삶을 설명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

방지일 원로목사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인용 “브니엘을 가져야 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방 목사는 하가남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아픔의 삶을 설명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는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어 보았다면서” 또한 “아픔과 같이 브니엘을 가져야 함을 절실하게 당해 봤다. 지금도 예의는 없다. 브니엘을 가져야 함을 새삼 느낄 뿐이다. 한국 교회도 아픔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직 의인 열사람이 남아있음을 믿는다”

림인식 목사는 ‘한국 교회의 갈등, 분쟁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근간에 ‘한국 교회는 세속화 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의 개신교단’로 공공연하게 지적을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탄식하면서 “한국교회 당면한 최 급선무가 이 문제해결이라는 긴박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림 목사는 “이러한 문제의 병을 고쳐줄 명의가 없는 것이 절망이고 어떤 치료법도 찾지 못하여 더욱 고통스럽다”며 “니름대로 모두가 백방으로 치료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리어 더 악화 일로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림 목사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는 첫째로 하는 목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이념(사상)과 정치를 초월 하여 화해의 주역이 되어야한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는 이 민족의 영(靈)을 살리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는 사람 사랑을

첫째로 하는 목회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의 구조적인 악순환에 교계 원로들의 비겁한 침묵도 일조했다”

오정호 목사는 ‘한기총 이대로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오 목사는 최근의 한기총과 한국 교회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오 목사는 먼저 발표문에서 “지금의 한기총은 김진주 목사님의 죄를 애용하는 마음과,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손암원 목사님의 긍휼의 목회, 이성복 목사님의 천로역정 목회, 한경직 목사님의 화평주의의 인격 목회, 김준곤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비전, 옥한흠 목사님의 제자도의 고결한 영적 유산을 시궁창에 내동댕이치고 있다”며 “그 중심에 각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교계는 구조적인 악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중심에 제가 속해있는 예정합동교단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선봉에 서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천박한 패거리 의식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보신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게다가 오 목사는 주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오탁 동인의 관행이 모두를 동반추락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함몰시키고 있다”고 한탄하고 “돈을 주고 교계의 한 자리를 얻고자하는 사람들이나, 돈을 받고 목회자의 양심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반역하는 것”이라며 “또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근의 한기총 해체론을 언급하면서 “한기총의 구조적인 악순환에 교계 원로들의 비겁한 침묵도 일조했다. 한기총이 이렇게 추락하도록 때로는 방관자적인 침묵으로, 때로는 앞둔갈듯한 교묘한 언행으로 일관한 원로그룹들



▲ 한복협 중앙위원들과 발표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목회자들도 다 함께 기도했다.

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오 목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각오로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함께 모여 우리시대의 미스바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서고 있다”며 “각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신학도들이 이미 도래한 영적 암흑기를 대처하고자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이 회개와 간구의 배움을 입고 열드려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다”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가 각종 분규와 갈등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며 운을 떼고 “근래에 와서는 각 분야마다 이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이익집단의 주장까지 겹치면서 이 갈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목사는 “한기총 사태나 감리교문제 그리고 소망교회 문제 등의 발화지점을 보면 모두 지도자 당사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개인의 교권욕망과 개인 차원의 입지단 교수합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가 하면 문제의 치유가 그만큼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

SBS ‘현장21’ 길목사 금권선거 의혹증폭

한기총 금권선거 문제 심층 취재

SBS 시사교발 프로그램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이 한기총 금권선거 문제를 5일 방영했다. ‘한기총 돈선거 10당5락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직후 한기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길자연목사에 대한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21’ 측은 프로그램 소개글에서 “금품살포를 폭로한 목사들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기총 선거에선 으레 ‘십당오락’(10억 뿌리면 당선되고 5억 뿌리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오간다고 실토했다”며 “기독교 대표단체인 ‘한기총’의 금권선거 논란을 통해 권력에 중독된 한국 기독교 대표단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SBS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최근 한기총 임시총회 정회사태, 금권선거 폭로 장면, 이광선목사

와 길자연 목사측 기도회, 관련 인물 등을 취재했다.

SBS는 1월 20일 열렸던 한기총 정기총회 파행 영상을 그대로 보내며 “길자연 목사측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대립, 총회장이 높아졌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길자연목사에 대한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 홍 목사가 이 목사를 향해 실탄질을 하며 “20억 쓴 것 다 인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광선 목사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처음 대표회장으로 도전했을 때 돈을 쓰지 않아 떨어졌고,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돈을 써서라도 당선돼서 한기총을 개혁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요한 목사와 김희경 목사 등이 출연, 길자연목사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주장들이 나왔

다. ‘현장 21’ 취재진은 길자연 목

사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길 목사에게 “홍재철 목사에게 질문하라”는 답변만을 들었고, 홍재철목사는 인터뷰에서 길 목사와 자신이 금권선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홍목사는 “나는 김희경 목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최요한 목사는 자신의 돈을 쓴 것인지 길목사의 돈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며, 이광선목사는 그의 돈 선거 때문에 떨어진 내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방송이후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공동회장 이은재 목사는 “과연 길자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일고의 양심도 없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어떻게 17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출마한 목사가 한기총 금권선거에 관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변명하며 모르고 있던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어린이 부흥회 무료로 개최

미자립교회 어린이 부흥회를 무료로 개최하기로



대표회장 조종제 목사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이하 한어협, 대표회장 조종제 목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자립교회

의 교회학교(주일 학교) 어린이부흥회를 무료로 개최하기로 지난 2월 정기모임에서 결의했다. ‘한어협’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있다”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는 말씀대로 “어렸을 때 받은 은혜가 평생간다”는 slogan을 걸고 2011년 4월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무

료로 인도하고 있다.

한편 강사진은 각 교단을 대표하는 한어협 어린이 부흥사들과 현재 전국의 어린이캠프를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강사들이다. 어린이부흥회는 말씀강사와 찬양팀 스태프들까지 팀웍을 이루어 함께 부흥회를 무료로 인도하고 있다.

한어협 대표회장 조종제 목사는 “어린이부흥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거듭남과 주님을 만나는 체험 및 교회 학교를 부흥, 성장시키고 싶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시도하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 한어협의 무료 부흥회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길은 먼저 교회학교를 살리고 부흥시키는데 있다는 한어협 부흥사들의 확신과 불타는 사명감이 이같은 헌신의 결의를 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종제 목사는 또 오늘의 한국교회의 정체 및 침체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이 교회학교의 침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하며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교회학교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머지 않아 한국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모든 분야가 불신자들에게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어협의 비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며 교회학교 부흥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이루려는데 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무료 부흥회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어린이 부흥사 세미나 및 부흥사

들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2회씩 한국 교회학교 살리기 어린이 지도자, 사역자, 부흥사 세미나를 오산 성은동산에서 열고 있다.

금년에는 6월27-29일로 예정되었다. 한어협은 1980년 서울 양문교회 원우연 목사(당시 교회교육진흥회장)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학교부흥의 큰 뜻을 품은 어린이 사역자들이 모여 발족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원우연 목사가 맡아 어린이부흥사역을 해오다가 원우연목사의 도미로 신정의 목사가 2대, 최명진 목사가 3대, 박연훈 목사가 4대를 거쳐 제5대 대표회장에 성문교회 조종제 목사가 선임되어 100여명의 초교과 어린이 전문사역자들과 부흥사들이 힘을 모아 한국교회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3.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4.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일에배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실
	금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주일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두란노홀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세로방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유초등부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전당
주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 칼럼 |

목련의 계절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심했다. 그런 와중에 구제역 확산으로 모든 가축들의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란의 겨울을 보냈다.

그러나 계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봄은 찾아와 모든 산천에 푸르름을 주고 있다. 산과 들에는 봄나물이 돌아났으며 모든 꽃들은 경쟁 하듯이 피어 약동하는 힘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중에 목련은 너무도 크려니와 꽃 봉우리도 커 하얀색, 보라색의 목련이 피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우리 가곡에 목련꽃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다. 그중에 한절의 가사가 생각난다. "목련꽃 그늘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오내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모습 봄에 온 가인 같고" 베르테르의 편지에는 순결한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젊은이들의 서정을 노래한 것이다. 사람은 감성과 지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감성과 지성의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특히 예능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다. 학창시절에 가곡을 부르고 정서를 함양하도록 한다면, 특별한 예술인이 아니라도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강력법 등 범죄자들은 감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감성과 지성이 결비 된다면 좋은 성품으로 살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

품은 혈통적으로 타고나지만 좋은 인건성은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사회 공통체적인 훈련과 감성과 지성을 가르쳐서 성장토록 한다면 폭넓은 좋은 인건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학교교육, 학원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인 동요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가정 및 학교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인 윤리, 도덕, 예술은 아이들의 장래에 아름다운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인간형성에 필요한 과목을 시험토록 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공을 지도 한다면 학원으로 부터의 자유와 학부모의 부담은 물론, 학생들의 좋은 성품의 인격향상으로 밝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이 된다면 영재 학생들의 자살처럼 사회에 어두움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 봄날의 찬연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한창 피어나는 계절에 꽃봉우리가 떨어짐은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위로 하겠는가? 젊은이들에게 시와 문학과 예술 체육으로 남을 배려하는 이해와 사랑이 있는 새로운 교육 개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재학생을 선호하는 교육풍토에서 지성과 감성을 겸한 교육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4월의 수다한 꽃들을 보면서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마음에 정서가 매말라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꽃동산에 올라 꽃 이름과 꽃의 유래와 동시를 짓도록 한다면, 성장한 이후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폭넓은 인간 형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목련의 계절에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며 여유와 서정적인 풍성을 가지고 가곡을 불러보자. 봄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온 가족이 손잡고 목련의 노래를 부르며 추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 젊음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과, 각계에 필요한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미래지향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도록 한다. 더 이상 영재들의 잘못된 결단이 없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5)" 목련은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시사 하고 있는 꽃으로 아름다운 지성과 감성이 가득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자.

밀알복지재단, 함께하면 통하는 시간! 밀알콘서트 개최

밀알복지재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8회 밀알콘서트 개최, 어린이공연 4월 19일, 일반공연 5월 2일 장애인음악가들과 세계정상 연주자들이 함께 할 예정,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7%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9일 11시 밀알아트센터 세라믹팔레스(일원역 7번출구)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제8회 밀알콘서트를 개최한다. 밀알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7년간 밀알콘서트를 개최해 왔으며 작년 장애인 448명 비장애인 1,302명 총 1,750명이 참석하였으며 140여개의 기관이 동참하였다. 밀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며 장애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밀알복지재단의 정형석상임이사는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즐기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뜻 깊은 행사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밀알콘서트에 대한 개최의지를 밝혔다.

제8회 밀알콘서트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어린이공연으로 4월 19일 밀알아트센터 세라믹팔레스홀에서, 2부는 일반공연으로 5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4월 19일 밀알콘서트 1부에는 장애인오케스트라 온누리사랑캠퍼의 연주와 직접청중을 찾아가 음악을 연주해주는 카이로스 앙상블, 첼로 장유진, 배기성, 바이올린 양고은 등이 참석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을 위해 연주한다.

또한 5월 2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밀알콘서트 2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수연, 바리톤 공병우, 오보에 조영현, 장애인오케스트라인 온누리사랑캠퍼 등 장애인음악가들과 세계정상에 선 연주자들이 출연한다. 이번 밀알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된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주·단기보호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에 있다. 서울 강남구의 실태를 통해 짐작해 본다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 1,000명 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70여명으로 7%밖에 되지 않는 형편이다. 또한 강남구에는 6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이곳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대기자 수만 해도 기관당 40여명이 넘는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마주주간보호센터의 전성배팀장은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년의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3~5년으로 정해져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성인장애인은 또 다시 보호받을 곳이 없어 가정에 방치되거나 보호자의 24시간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성인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게 된 밀알복지재단은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단기보호센터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고 밀알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알의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는 집에서 보호받기 힘든 지역사회의 성인장애인을 아침부터

밤10까지 매일 보호하는 주간보호와 주말, 휴일 등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단기보호로 운영된다.

행사일시 2011. 4. 19(화) 오전 11시 2011. 5. 2(월) 오후 8시 행사장소 밀알아트센터 세라믹팔레스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출연진 양고은 바이올린 연주 카이로스 앙상블 온누리사랑캠퍼 첼로 장유진, 배기성 카이로스앙상블윤경희(세종대 교수) 바리톤 공병우(서울대 음대졸업) 소프라노 김수연(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졸업) 온누리사랑캠퍼 손인경(예일음대) 오보에 조영현(독일 쾰른국립음대).

밀알복지재단 홍보 담당 김미란 (070-8708-1234, 010-9269-6463)

홈페이지 <http://www.miral.org>
이메일 miran@miral.org

(사)합동중앙총회 2011 부흥사협의회 정총

대표회장 조갑문 목사 추대 부흥사협의회 조직 발표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중앙)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67-8 총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1 부흥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조갑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본 협의회 임원진을 사전 협의 조직을 발표했다.

이날 정총에 앞서 권오장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총회총무 이승진 목사가 기도, 총재 김호운 목사는 사회자가 봉독한 (요일3:1-3, 담후 1:10-12)절을 인용 "주께서 나타내심이 되면"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애순 목사가 헌금기도를, 총회장 서욱임 목사(합동중앙총회)의 축사가 있은 후 이은섭 목사(증경총회장), 조옥련 목사

(증경총회장)가 축사와 권면을 맡았다. 이날 권오장 목사는 부흥사협의회 소식을 전하고, 이승진 목사(총회총무)가 총회에 관한 광고를 전했으며, 강용식 목사(증경총회장)축도로 마쳤다.

합동중앙총회 부흥사협의회 고문, 자문, 신 임원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고문 강용식 목사 조옥련 목사 이은섭 목사 서욱임 목사 최옥석 목사, 자문위원 유희열 목사 김동석 목사 김의경 목사 이애벽 목사 윤영재 목사 김영숙 목사, 총재 김호운 목사, 대표회장 조갑문 목사, 수석상임회장 손문식 목사, 정애순 목사, 연수원장 이승진 목사, 상임회장 최인숙, 장성민, 김진태, 문덕남, 오춘자, 권필수, 이



▲합동중앙총회 조갑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종득, 권오장 목사, 운영회장 김효숙, 김영희, 이우성, 유희숙, 한기용, 전영주, 박정순, 이환원, 이준애, 이덕희, 이덕수, 김홍섭, 최길준, 이남웅 목사, 실무회장 함두만, 최재홍, 이재홍, 고갑순, 송명주, 최영욱, 김민나, 김순자, 최영호, 김지숙 목사, 공동회장 장

영열, 유종태, 황순옥, 신태모, 이웅규, 이광원, 기노성 목사, 강사단장 안성봉 목사 사무총장 강정식 목사 상임총무 전종규 목사 서기(회의록) 윤대환 목사 (부)민학근 목사 회계 황명숙 목사 감사 송홍렬 목사 전주원 목사 등이다.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계좌 : 455030-56-005509
(예금주 : 정기남)

사고 / 가정예배는 WWW.JTNTV.KR CJTN방송 신학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 부 활

한국기독교찬양치유포럼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강사 : 총재 음악박사 장창윤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추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시 00분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00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목요 찬양치유예배	오후 8시 00분
금 요 예 배	오후 8시 00분
학 생 예 배 (토)	오후 5시 00분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00분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00분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422

☎031)765-9826, H.P010-5461-

추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139-202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5층)

변질이 아닌 변화의 능력

이사야53:4-5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라는 소식 즉 뉴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의 굿 뉴스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절망과 낙망 가운데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고기잡이로 가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마음에 고통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자 그들에게 있었던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는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여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대제사장들의 횡포는 참으로 두려운 존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본지서장



재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어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굿 뉴스였으며 변질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변질이 아닌 변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학과 더 좋은 부활

1. 부활절을 앞두고 제기되는 것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신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부활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활절을 Easter day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성경에는 부활절(Easter day)이 없고 단지 초실절의 절기(부활의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명칭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하는가? 이스터는 이교도 봄의 여신인 Easter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예데, Ⅴ, Ⅶ. 또는 성서대백과 기독교 지혜사 Ⅲ 448) 따라서 Easter 신(神)을 섬기는 축제일이 기독교의 부활절 명칭과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Easter라고 말하지 않고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활에 관한 단어는 resurrection으로 기록되

어있지 Easter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학자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 대해 부활신학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부활의 진리를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설화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류를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하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어찌 십자가

장한국 목사

주시광교회
본지 상임이사



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신 21:23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기에 예수가 참 메시아라면 어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논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일 수 있느냐는 것으로 질문과 논쟁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논쟁과 함께 또 부활에 관한 논쟁과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마28:1~6」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므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오늘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창3:15에 보면 뱀(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공회원들이나 하수들과 로마군병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망권을 이기시고 죽을 가운데 부활하시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1) 마12:38-40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으시기 전 3일간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 마16:21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되는 날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 마26:32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1) 마27:39-40에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고

정기환 목사

웨스턴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부천전원중앙교회 본지 상임이사



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영원히 갇히셨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4.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전15:20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으로 인한 교훈

(민22:5, 민25:18, 민31:8,16 신23:4-5, 수3:22, 수24:9-10, 느13:2, 미6:5 벰후2:15 유1:11, 계2:14)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총 망라하여 유명인사가 된 메소보다미아의 강변 브론의 술사(민22:5, 신23:4-5) 브론의 아들 발람을 보며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불의의 샅을 쫓다가 저주 가운데 죽은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발람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사술로 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를 돌아켜야 되겠습니다.

민22:1-40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민22:1), 모압 왕 심비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과 그 수가 많음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여(민22:2-4), 강변 브론이 분향인 술사 브론의 아들 발람에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술의 예물을 보내어 이스라엘

을 저주하라고 부릅니다(민22:5-7).

하나 브론의 아들 발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찌 할꼬 응답하심을 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민22:8-12) 이에 발람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그들을 돌려보냈고, 모압 장로들이 심비의 아들 발람에게 발람이 거절하더라도 하니 발람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며 더 큰 명예와 부를 약속하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민22:14-17) 여기서 발람이 물질(부)과 명예가 욕심이 나서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민22:18-19까지 발람이 여호와께 응답을 구하고 민22:20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한데 민22:21에 발람이 자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즉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데 민22:22-33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었고 발람은 보지 못하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영성원 원장
CJTN방송 부서장



였는데 그의 나귀는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있는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길에서 피해 발로 들어갑니다.

민22:34에 발람이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민22:35에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있던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민22:8-12 발람이 여호와께 불었을 때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발람보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으면 발람이 더 높은 귀족들을 많이 보내어 간청하고 또 아무리 많고 큰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할 지라도 한마디에 거절해야 하는데 (다음호에 계속)



부활

대한예수교 목포만나교회 장로회 목포신학교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모상란 박사
연구원장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행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관: 개령학기(여름, 겨울) 아간: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학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예교역직(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교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만 경우는 신학과 2학년제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부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케어복지사(면간) 자격 취득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학위수여식 참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D) 연구원 원장: 모상란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저전동 162-6번지 / 담당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 핸드폰 : 011-631-1977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죽 부활

담임 정연수 목사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목회자칼럼

W.C.C.(세계교회 협의회)란?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 들어가는 말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은 하나이다. 이것이 교회 연합의 이유이며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적인 교류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교회의 국제적(國際的)인 연합이 촉진(促進)되고 있다. 그래서 20세기는 교회연합 운동이 많이 추진되어왔다.

① W.C.C. ② I.C.C.C. ③ R. E. S. 등이 대표적인 교회연합운동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연합운동들이 과연 참된 교회연합이었는가? 성경적(聖經的)이며 복음적(福音的)이었는가? 이 기구(器具)들의 역사와 신학 사상을 비판(批判)하고 복음적이지 못함을 말하고자 한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두 사람이 의협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암 3 : 3)라고 했으며,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는가?”(고후 16 : 14)라고 말하였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존재하는 영적 일치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인들은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요 15 : 19) 분리된 자들인데, 이들은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체적 공동체(共同體)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일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 17 : 11 이하, 엡 4 : 1-16). 이러한 단일성과, 또한 이같은 목적과 뜻에 대한 분명한 대담을 거부하려는 노력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역사에서 구체화되고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권위인 성경은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의 창시자라고 가르친다. 그는 빛과 어두움, 바다와 육지,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그는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정결과 불결, 경건과 불경을 구분하였으며, 또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구분하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모호하게 하려 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誘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했다. 그래서 “행위계약”에 실패(失敗)한 인간에게는 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되었고 에덴동산에서 추방(追放)되었다.

교파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의 협동과 각 교파 신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공통적 인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이 성이 있으며, 또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연합”과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W.C.C.가 표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연합뿐 아니라, 또한 모든 종교의 연합에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 배경은 교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17, 18세기의 인본주의 철학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본주의 철학은 종교적 신앙의 내용이 되며, 초자연적인 성격을 어떤 증거로도 입증되지 못한다는 귀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새로운 신학의 토대를 이루어 놓았다.

그는 자유주의(自由主義) 신학--사실이 아니라 신앙을 믿는 비과학적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웠다. 소위 “자유주의신학”(liberal theology)은 “자유로운”(liberal)이라는 단어의 “자유”(free)라는 문자적 개념을 사용하여, 엄밀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자유롭게 하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자유에 이른다.

슐라이어마허에 있어서 종교는 감정이며, 신학은 종교적 감정의 내용이다. 진리의 표준은 기록된 계시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것은 자연인으로 하여금 순수 이성주의에서 벗어나, 종교로 돌아가도록 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람을 계시된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권위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간은 그들이 오류라고 생각하며, 또 지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거절하며, 또한 비판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말았다.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사회복음”이 미국 신학계의 수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에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유래없는 산업과학(産業科學) 시대의 낙관주의적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예일대학의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이나 영향력(影響力) 있는 회중교회의 목사이며 작가인 워싱턴 글래든(Washington Gladden), 또한 침례교회에서 탈퇴하고『사회복음신학』(The Theology of the Social Gospel)이라는 책을 저술한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등과 같은 인물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과 성경의 본질적 권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교리로 요약된다.

1. 하나님의 속성은 순수한 박애정신이며.....모든 인간은 그의 자녀들이며.....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아들됨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2.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성이 선하므로 그들의 천성적인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완전한 교사이며 모범(模範)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구주이시다. 그는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니며.....천녀에게서 나지도 않았고.....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으며.....죽음에서 부활하지도 않았다.
4.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으며, 여러 종교가운데 최고 최상의 것일 뿐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 양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교는 하나의 신앙을 다른 신앙으로 개종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의 도움을 받아 다체로와 집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5.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기록이다. 신약성경의 제1세기적 신학이 20세기 인간의 규범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이 W.C.C.의 입장과 태도와 방향을 어떻게 특징짓게 되는가를 곧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며 역사적 기독교가 아니다. 만약 이 내용중 어느 것이 W.C.C.의 입장이라면 W.C.C.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조직체가 아니며, 그 명칭 속의 “교회”라는 말은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교론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 (4)

왕하 2:1-11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 2절 : 뱀엘 2. 4절 : 여리고 3. 6절 : 요단

계20:1-3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 자신도 자기의 때가 끝나고 있으며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분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계12: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지금 말세 중의 말세에 살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받은 감절의 능력보다 엘리사가 행한 능력에 칠 감절은 더 받아야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대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째, 애굽 : 세상에서 해방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출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衆多)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1:12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팽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잘 뜹니다.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많은 모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모형이 중요함입니다. 먼저 애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기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바로 애굽입니다. 바로왕은 사단의 모형입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주체가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사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광야 같은 영적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내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기주의(利己主義)와 이타주의(利他主義)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적자 생존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야생의 법칙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쟁 상대이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적과의 동침도 감수해야하는 사회가 바로 소위 만물의 영장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처절하고 슬픈 모습인 것이다. 여기에는 가진 자가 적자이며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고상한 사상이나 이념은 퇴색해버린 고물에 지나지 않으며 천박하게 세속화된 종교는 윤락녀처럼 돈 앞에서 억지웃을 짓는다. 잘살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상식이며 또 이것을 누가 알기알부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세속의 가치 기준은 ‘잘사는 것이 곧 진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산다는 것이 전적으로 길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불량주의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

다.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하면 모든 과정은 합리화되고 그 영향력은 증대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다. “깡 잡는 것이 배”라 한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사회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술과 진리로 자리매김되면 인간사회는 태초 이전의 혼돈상태로 회귀하게 될지도 모른다.

질서는 균형이고 이 균형은 아름다움(美)인 것이다. 이기주의는 탐욕을 실현(實踐)의 경행(實踐)으로 한 일종의 반 기독교적 유사종교라 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로 규정짓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 윤리는 절대적으로 “이타주의”이다. 이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창조 하나님께서 천히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이타주의로 인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희생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셨다. 이타주의에는 당연히 희생이 수반되는 것



이준철 목사

칼럼리스트

이고 그래서 혹 실패로도 보이기 쉽다. 그러나 성공 같은 실패가 있는 것이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성공 같은 실패를 지향하고, 이타주의는 실패 같은 성공을 추구한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이타주의가 상식이 되고 규범이 되는 사회인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곳 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안드로메다를 지나 가늠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수심악, 수백억짜리 교회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다. 그것은 유토피아 즉,utopia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축 부 할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축 부 할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 이 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축 부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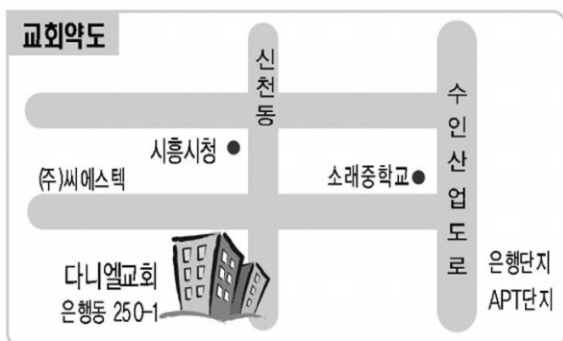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축 부 할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 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 초등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학교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대예배실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5:00	4층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4층
	토요일 오후 5:0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성경예배	월요일 10:00, 12:00	2층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성경예배	월요일 10:00, 12:00	2층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 (29)

시편 23편은 정신건강의 명약!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 4, 5).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글 중 가장 아름다운 글이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고 있는 시는 성경의 시편 23편이다.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 시는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금혼식에도 어울린다. 또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축복 시로도 적합하고 부모의 장례식에도 어색하지 않아 시 · 공간을 막론하고 인생의 모든 사건에 전천후로 애송되는 시다. 이 시의 분위기는 승리의 확신, 감사, 기쁨, 평화로 압축할 수 있으나 삶의 장엄함과 치열함을 아울러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적인 견련과 풍요로운 인간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작가인 다윗은 목자에서 왕에 이르는 신분상승의 극적인 모델이면서 사자와 곰, 골리앗, 사울 왕, 이방의 세력을 십자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대와 싸워야했던 파란의 생애였음은 주

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시편 23편의 능력은 바로 처절한 두려움과 배신, 절대 절명의 위기와 절망적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던 다윗의 생생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는 틀에 박힌 형태의 관념적인 신앙의 표현이 아니다. 시편 23편은 공경이 몰아치는 생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즉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피보다도 진한 고백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업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던 한 인간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툴루지에 박사는 노이로제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두 번 아침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유명한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하워드캘러 박사는 “성경은 나에게 동료의사의 역할을 해준다. 성경말씀은 매우 훌륭한 의술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단 한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절실한 고백을 했다. 필자도 학생시절 매일 밤 불면증과 번민으로 시달리는 당시 장관이었던

남편에게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취침 전에 시편 23편을 읽어주어 신앙을 회복시키고 불면증을 완치시킨 슬기로운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시편 23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질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료하는 비상한 능력 발휘의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까. 동병상련의 정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치유력은 인간정서의 보편성에 호소하면서도 절대 신앙을 통한 “극한적 상황과 내적 위기의 극복”이라는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좋다. 직장에서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다. 근무시간에도 좋고 여행 중에도 좋다. 화장실에서도, 민원버스에서도 좋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강한 삶을 누리자.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한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시편 23편만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갖 정신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여 정신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인 시편 23편을 주어로 묵상함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누리자.

황성주 박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중에서

“비만에 좋은 5대차 만들기”

많은 여성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날씬해지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이 빠지는 차가 다섯 가지 있다.

배차 : 배차는 간기능을 원활히 하여 지방 축적을 줄이므로 야위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차를 만드는 방법, 배는 겹집을 벗겨 4등분 하고 심지 부분을 도려낸 후 1cm 두께로 얇게 썰어 그릇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배가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2~3일 후부터 1회 8~12g 씩 꺼내 컵에 담고 따끈한 물을 부어 10분쯤 우려내어 마시면 된다. 하루 3회 식 간 공복에 드시는 게 좋다. 신맛과 단맛과 향이 어우러져 마시기 아주 좋다. 배가 체질일 때 위와 같은 요령으로 1cm 두께로 저며 잘 말려두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율무차 : 율무는 이뇨 효과가 뛰어나므로 체내의 수분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여 속진 불상이 진 경우에 좋다. 소염, 소종, 진통 작용도 뛰어나고 피로회복과 자양, 강장 작용도 한다. 그래서 신경통을 비롯해서 기미, 주근깨, 여드름을 예방하기도 하는 여성 미용제 이면서 비만 치료제가 된다. 율무차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율무에 티가 섞여 있지 않도록 잘 골라 깨끗이 씻은 다음 체에 밭쳐 물기를 뺀 후 프라이팬에서 볶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이것을 한 번에 12~20g 씩 꺼내어 물 3컵으로 끓여 반으로 졸면 차잔에 부어서 2~3회 나누어 마신다. 설날 대신에 꿀을 소량 타서 단맛을

낼 수도 있지만 비만에는 되도록이면 꿀도 쓰지 않는 게 좋다. 율무가 좋지만 임신 중에는 들지 않는 게 좋다. 소화기 기능이 약할 때는 반드시 북아서 쓰도록 하고, 부종이 심할 때는 생음무로 차를 끓이도록 하면 된다.

양배추차 : 양배추는 이온과 염소라는 두 가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정화 작용을 하므로 다량으로 먹으면 이온 냄새가 나는 가스가 발생한다. 이것은 장내의 노폐물이 분해, 정화되기 때문이며 그러한 까닭에 비만에 의한 노폐물 축적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양배추는 또 원기를 돌우고 마음을 점차하게 해 주며 피로, 불면 위궤양을 다스리며 뼈를 강하게 해 주기도 한다. 양배추 차는 우선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 분마기에 갈아서 즙을 짜낸다. 이 즙을 그냥 마실수록 더 좋지만 마시기 역겨우면 이 즙을 냄비에 넣고 따끈할 정도로 살짝 데워서 마시면 된다. 하루 3회, 한번에 한 컵씩 식간 공복에 마시도록 한다. 양배추에는 유기질 유황이 들어 있어 특이한 냄새가 나므로 마실 때 식초를 조금 치거나 사과즙을 짜서 넣으면 좋다. 몸이 찬 사람에게는 살짝 데운 양배추차가 좋다. 단 궤양이 심할 경우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항궤양 성분인 비타민 U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위유차 : 위유는 나리과에 속하는 동굴래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으로 일명 옥옥이라고 하며 인슐린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

다. 비만의 원인은 지방 세포는 혈중에 흐르는 혈당과 지방을 재료로 해서 뚱뚱해져가는 것이므로, 위유는 비만증에도 효과가 크다. 위유는 또 강심 작용을 하고 혈압강하작용을 하며 마른기침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건재약국에서 구입한 위유를 깨끗이 씻어 체반에 넣어 2~3일 정도 바짝 말린다. 이것을 하루에 12g 씩 물 6컵으로 은근히 끓여 반으로 줄여서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나누어 마시면 된다. 예로부터 인삼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용 보약하는 작용이 강하다고 하지만 약간의 청열 작용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허열을 겸했을 때는 써도 좋지만 허냉한 증세가 뚜렷할 때는 많이 들지 않는 게 좋다.

사과차 : 사과에는 많은 비타민류, 특히 비타민 A,B,C가 풍부하며 흡수가 잘 되고 동화되기 쉬운 당류, 효소, 그리고 피로 물질들을 제거하는 유기산이 풍부하다. 체내 정화 작용 및 해열, 거담, 소염 작용이 있고 진정 작용 또한 강하다. 또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고치며 습진, 비만 등 여러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칼륨이 많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긴 고혈압에서는 칼륨과 나트륨의 평형을 이루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윤이 나고 색이 선명하며 잘 익은 사과를 깨끗이 씻어 불기를 닦고 네 쪽으로 자른 뒤, 심지 부분을 버리고 1cm 두께로 얇게 썰어서 이것을 체반에 겹쳐서 않도록 널어서 1주일 정도 완전히 골고루 말린 후 용기에 담아 보관해둔다. 이제 말린 사과 20g을 물 6컵으로 끓여 사과향이 우러나면 마시도록 한다.

선한 일과 구원을 구별하는 신앙

천국은 선한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 공덕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건강한 자든, 지식인이든, 학자이든, 대통령이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장애자든,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특혜나 부정으로가 아닌 누구든지 예수 믿고 聖化로 살다가 천국(구원)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구원의 대상입니다. 聖化는 선한 일(者) 착한 일(者)과는 그 質을 달리 합니다. 성화는 본래 창조 당시의 근본이었는데 인간 타락(죄)으로 상실했던 것을 구원으로 연하여 하늘 체질로 원상복귀 하는 개념의 것입니다. 테라사 수녀를 가리켜 가난한 병든

자를 위해 살았으니 ‘그가 천국 못가면 과연 누가 가겠는가?’라고 하겠지만 가난한, 병든 자들은 건강한 자들이 천국가기 위해 돌보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과 조건이 가난하고 병든 것뿐이지,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회개하여 구원에 도달해야 하는 인격체들이며 독립체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감사배 받고 광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어 줬을

때 빵을 얻어먹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있는 사랑개념이 아니고 철저히도 십자가 구원을 통해 속죄를 입은 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자원으로 나타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니 사랑을 난발해선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 배움이 아니고 구원으로 聖化(이)됩니다. 장애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이 그들을 돌봐 천국 가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통한 동반자 대역에 설뿐입니다. 《선한 일과 구원을 구별하여 신앙합시다.》

·성식

할미꽃 이야기

봄나들이를 가시었다. 그럴듯하게 처린 첫집이 눈에 띄어 들어갔더니 계단 옆 잔디밭에 할미꽃이 피어 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다시 봐도 역시 그 꽃이었 다. 집 근처에서는 보기 드문 어린 시절의 야생화다. 반갑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여 종업원에게 물었다. “심은 것입니까, 절로 난 겁니까?” “그야 물론 심은 것이지요” 별 걸 다 묻는다는 투로 그는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원래 할미꽃은 뿌리가 깊어 옮겨다 심으면 살지 못한다. 흙이 부드러운 무덤가나 깨끗한 천변에 많았다. 어른들은 독이 있다고 껴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던 기억도 난다. 그 독이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약용 식물학을 배우고 나서였다. 자연에는 약성을 가진 신비로운 식물이 많다. 특히 야생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방에서 쓰는 대부분의 약도 바로 이들이다. 민간약으로 구전되다 한 방약이 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신약으로 승격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아스피린은 버들에서 채취된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는 약에서도 통한다.

봄철 산에는 바로 생약의 축제장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맛으로 향기로 빛깔로 알개 모르게 우리의 삶을 살지게 하고 건강을 지켜준다. 할미꽃도 그 중의 하나다. 이른 봄 무덤 가 양지바른 잔디밭에 다소곳이 었드려 겸손하게 피어나는 꽃,



중국에서는 이를 백두옹(白頭翁)이라고 불러 진작부터 약으로 썼다. 바람에 나부끼는 흰 꽃씨가 백발을 가진 노인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혈(血)에 들어가 열독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함으로써 아메바성 적리 및 이질

에 쓰인다’ 독은 독을 제거하는 것인지 다른 약을 첨가해 만든 백두옹탕은 직장암 치료에 쓴 기록도 있다. 아마도 더 깊은 연구가 있었다면 성인병에 탁효를 가진 기적의 신약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은성님은 또 이렇게 읊는다. <겉 보고 늙었다 마오 마음 속 붉은 것을/해마다 봄바람에 타는 안을 끄지 못해/수심에 숙인 고개 어느 분이 알리오> 재미있는 것은 같은 꽃을 두고 우리네 조상은 할머니로 본 반면 중국인들은 할아버지로 본 시각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허리 굽은 할머니였다면 중국인에게는 위엄을 부리는 할아버지가 그 대상이었을까. 내게는 보송보송한 솜털의 꾸지람 당하고 있는 동자(童子)로 보이건만,

야성을 없앤 야생화를 관상용으로 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마치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자녀를 혹사시키는 교육관과도 흡사하다. 5월은 어린이와 어버이가 하나로 되는 가정의 달, 자연은 자연으로 둘 때가 가장 바람직스럽다. 비단 야생화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 같다.

축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표어: “좋은 땅이 되라! (마13:8)”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따르니 우리 모두 좋은 성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오종철

2011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문 화 교 실			
구 분	시 간	순번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1	총남서모이거대미	월요 오전 11: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2	배목교실	주일 오전 10: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3	막귀교실	주중 오전 12:0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4	제자훈련	주중 평한시간
	금요일성서유정회	금요 밤 9:00	5	숫돌에 속구교실	주일 오후 3:00
교회 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7	숫돌에	주중 매일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8	제직단원	주중 매일
	대학부	토요 오후 6:30	9	홍성아동보호교실	주중 매일
	영 청년회	토요 오후 6:30	10	홍성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홍성성경대학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축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세/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6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8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일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축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상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권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안목 탐방

김천 예수원(박길찬 목사) 1,108명 전도



원장 박길찬 목사

한때 전도목사로 임명받아 학생기를 들고 외치며 10개월 만에 1,108명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철저하게 전도훈련으로 무장시켜왔다.

전국에서 공해가 없고 수질이 제일 좋은 김천, 그것은 김천에 공장이 없어서 공기도 물도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곳에 김천 예수원이 있다. 김천 시내에서 또는 역에서 약 50여분 걸리는 곳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소재에 자리한 예수원, 아름다운 신들이 예수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신선한 공기에 물맛이 신기하게 맛이 좋다.

봄이 오면 온통 복숭아꽃 살구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신에는 진달래를 비롯 각종 야생화로 천국을 보는 듯이 아름다운 곳 중앙에 예수원이 자리하고 있다. 원장 박길찬 목사는 11년 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에 예수원을 개척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와 기도처, 숙소를 완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매 주 끊임없이 찾아오는 예수원 기도원이며, 예수원의 특성은 예수를 처음 믿음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 훈련세미나를 교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영성훈련 세미나를 통해 교회들이 전도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목회자 부부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목사 사모들이 큰 변화를 받게 한 부부훈련을 시킨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공해 없는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육창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되어 돌아가는 지난 11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박 목사!

1. 목회자는 말씀을 통한 4가지

성령 영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권한다.

1) 초대교회 사도 성도들이 들고 보고 만나고 만져본 능력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목회자, 2) 한 사람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목회자, 3) 1,108명이 전도된 배가 부흥의 전략으로 교회를 갑절로 부흥시키는 것을 원하는 교회, 4) 부부갈등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고 햇빛을 쬌 날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목회하기를 원하는 목회자 부부,

2. 평신도가 받아야 할 말씀을 통한 성령 영성교육이 있다.

1) 성령충만 받고, 중생(새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 2) 구원의 확신을 얻고 배우고 확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성도, 3) 평생 즐겁게 복음 전하는 구령상 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4) 죽은 생명(불신자) 살리고 병든 영혼(신자)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영혼의 의사 전도자가 되고 싶은 성도, 5) 부부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부부 등을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다.

원장 박길찬 목사는 경북 상주군 외남면 소상리가 고향이다. 소

상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그때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거쳐 19살 때 부흥집회에 참석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서 주회할 수 가 없었고 성령체험을 가졌으며, 천자가 천국처럼 아름다웠고, 주마니에 있는 돈과 옷을 벗어서 절인에게 주고, 성경책을 구입해서 노방전도에 미쳤었다. 당시 마신에서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방목사를 권유로 오순절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칼빈신학을 거쳐 대한신학을 나와 예장대신교회 부전도회에 소속해 있다. 확성기를 들고 노방전도에 미쳤던 박길찬 목사이다.

●최초 예수원을 이곳에 세우게 된 동기는?

☆고향 상주에서 서울로 신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으며, 이곳 아랫마을에도 사택과 교회를 건축하고 10년 동안 시무했습니다. 그 후 부전에서 개척교회와 부전삼점교회(담임 심원용 목사)에 전도목사로 임명되어 약 11개월 동안 1,108명을 전도를 했으며 성도들을 전도에 대해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김천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논과 밭이었으며, 버가 자라서 무릎에 이르렀는데, 순간 하얀간판에 붉은 글씨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원을 세웠으며 매년 4월이면 이 일대가 복숭아꽃으로 온통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원장 박길찬 목사는 부인 정사라 사모와 1974년 4월에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고 다 출가했다. 박 목사는 세계주영광부흥 중 방목사의 권유로 오순절 신학 당대의 믿음 가진 신앙의 개척자였기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한다. 박 목사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웅언처럼 끓고 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한 성령 영성 훈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영성훈련 세미나를 통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목회자는 양떼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철저한 훈련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재 내용은 ①6:11~14절을 주제로 (1)구원의 투구, (2)잔리의 띠, (3)믿음의 방패, (4)의 흉배, (5)복음의 신발, (6)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7)무시기도, 등으로 교육하며, 이는

구원론, 진리론, 신앙론, 복음론, 성결론, 말씀론, 성령론 등 7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원을 개원하고 김천시를 돌며 장애인들을 데려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원이 점점 알려졌고, 2010년부터는 목회자 사명자를 위한 세미나 훈련을 시작했고, 핵심은 전도요 천국을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황금동교회)에서 평신도 훈련세미나를 했는데, 담임 노영천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 집회를 했지만 집회가 끝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평신도 훈련세미나를 통해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보냈습니다. 평신도 훈련을 통해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도 내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들고 보고 만나고 만져본 능력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했



김천예수원교회 집회

습니다. 오는 2011년 4월에도 목회자를 초청 전도사역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을 바로 듣게 하는데 있습니다.

역시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넷째로 저의 목적은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부부세미나 부부론을 집중적으로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원의 자람은 6년 전 허 모 노인은 사위 딸 아들 며느리 등이 있지만 아무도 침해가 심하고 육창까지 심한 노인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몇 개월간 있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된다는 육창이 깨끗하게 낳았습니다. 그 외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가 다 낳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0년을 예수 믿어도 신앙성숙이 안 되고 알곡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들을 영성세미나를 통해서 바른 교육, 바른 훈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옵니다. 이 사역이 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인터뷰 중 자리를 같이 했던 세계 주영광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사무총장 권영민 목사, 대표총재 이재갑 목사는 원장 박길찬 목사에 대해서 다정다감한분, 친절하고 겸손한 분, 본받을 것이 많은 덕망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 본 세무법에 영광이라며 격려와 자람을 아끼지 않았다. 원장 박길찬 목사는 세무법 부총재이며, CJTN방송 본지 후원이사이다. 경북 김천 예수원 : 054)439-3353 017)527-9191



김천예수원교회 전경

토브의 푸른초장

징계는 다 받는 것

담임 김광식 목사
과천 토브교회
본지 후원이사



히21:1~13절 / 징계란 말은 "양육하다, 때리다, 교훈하다"란 뜻으로 "사내아이, 젊은 이, 아이를 가르치다"라는 <파이스:naos>는 말에서 유래 합니다. 어린이를 키울 때는 매를 때리면서 키우라는 우리 옛 선조들의 교훈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영어의 <Discipline>도 "단련, 버릇들이기"의 뜻이며 군기도

"Military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도 징계를 꾸지람 또는 채찍질 등의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징계 후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라고 찬양했습니다.

셋째로, 징계는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삼상 7:14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된 훈련 뒤에야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넷째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119:67) 징계는 다 받는 것임을 명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온 가족이 은혜 받은 말을 서로 나누십시오.> 살뜰

성경적 사도행전교회로 부흥케 하며 신랑예수 맞이할 신앙성장 위한 종말시대 바른성경신앙 말씀무장 부흥성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 부흥회 내용과 특징

사도복음 성령 영성교육을 꼭 받아야 할 분

1. 사도행전 초대교회 신앙회복 사명충성하게 됩니다.
2. 속죄구원 부활 천국순종 영생 재림신앙으로 무장됩니다.
3. 육에 속한 어린이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됩니다.
4. 종말 추수 환난 심판 때 천국 알곡으로 결실하게 합니다.
5. 부부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6. 1108명이 전도된 배가전도 전략집회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7. 바울같이 1~3년 지속적 전도로 성경적 교회로 성장하게 함



강사 박길찬 목사
교회: 054)439-3353
H.P: 017-527-9191

- 경북 상주 출생
- 칼빈신대, 안양신대
- 상주 신성교회 개척, 건축
- 김천어모교회 개척 봉헌
- 오산 광은기도원 초대 원목
- 부전 삼광교회 전도목사 (1108명 전도 성과)
- 청교도 부흥사회 상임회장
- 세계한민족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 부총재
- 김천 예수원, 교회

"성경신앙 배가전도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들"

부전삼광교회	(심원용 목사)
서서울중앙교회	(한영훈 목사)
시흥 새하늘교회	(박승식 목사)
김천 황금동교회	(이현세 목사)
부전 새관조교회	(김남혁 목사)
시흥 성령교회	(김명주 목사)
인천마가다라방교회	(박장원 목사)
경산 새경산교회	(이장우 목사)
동해 명성교회	(이영택 목사)
부산 금샘은혜교회	(신승달 목사)
대구 참사랑교회	(간석광교회)
이외 다수 교회 집회 인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성경신앙훈련 믿음에서 천국까지

성경신앙대학

(이제는 신앙의 병든자, 약자도, 입원 치료받을 때)
매주: 월~수, 목~토 연중 입원 교육 치유
10명~100명 교회별, 기관, 단체, 담별 입소
강사: 박길찬 목사(김천 예수원 원장)
입소비: 1인 2박 3일 4만원(숙식일체)
입소교회에서 식사준비하면 사용료 2만원
참고: 교육 교재는 각자 구입
교육 신청 문의 017-527-9191 / 054-439-3353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천 예수원

목회자 부부 사명자 사도복음 능력신앙회복훈련세미나

일시: 2011년 4월 18일(월) 오후 2시 ~ 18일(수) 오전까지
장소: 김천 예수원 등록비: 4만원(숙식비) 교재는 개인 구입
교통편: 무궁화호, 새마을호 김천역 하차, KTX 김천구미역 하차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전국노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노회장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hp 011-364-428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이경찬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80-950) 충북 충주시 교원1동 484-15 노회장 이경찬 목사 서평교회 hp 010-7660-9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충노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3-859)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0 노회장 이기식 목사 안샘교회 hp 010-3240-4713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노회 노회장 장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지동 65-2 수내빌딩 5층 노회장 장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hp 010-3136-0697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천노회 노회장 김중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43-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34-11 노회장 김중국 목사 은성교회 hp 011-9991-6288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노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30-350) 전남목포시 산정3동 149-1 노회장 김성남 목사 목포이웃교회 hp 019-633-171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노회 노회장 김학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80-950) 충북 충주시 교원1동 484-15 노회장 김학기 목사 새생명교회 hp 010-7660-9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림프라자(교외)7층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05-808)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80-11 노회장 심순범 목사 대전예배교회 hp 010-5674-77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22-87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노회장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hp 010-4270-3462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박용학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76-873) 충북 보은군 신안면 장교2리 노회장 박용학 목사 장교교회 hp 011-9805-446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이종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50-762)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42-17 노회장 이종우 목사 바울선교회 hp 010-2740-157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73-873) 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노회장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hp 010-3944-94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화합과 단결로 힘 있는 중앙노회로 전진하자 (138-819)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노회장 정기남 목사 본지 대표이사 연남교회 담임 tel 070-8230-0032.34, H.P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 담임 신언창 목사 외 교우 일동 (585-851) 충남 당진군 성송면 임치리 16-2 담임 신언창 목사 원신교회 총무 tel 063)564-4001, hp 010-8602-30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담임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교무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위경2동 52번지 현대상가 3층 301호 노회장 김성남 목사 목포이웃교회 hp 017-717-4400	선일장로교회 전북지사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북전주 지사장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8-11 담임 박주성 목사 hp 063)241-9182, 242-0134, hp 011-659-1016	한사랑교회 중부지사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302-161)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9-16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hp 010-2872-4357	퓨리탄 장로교회 서영용 담임 목사 퓨리탄신학대 학장, 본지 상임이사 (우)300-160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29번지 서영용 목사 hp 010-6603-3022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누리교회 담임 전연구 목사 외 교우 일동 충남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512-4 담임 전연구 목사 hp 041)356-0688, 010-2410-0688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 지영철 목사 외 교우 일동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담임 지영철 목사 hp 02)474-1353, 011-413-1229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구촌교회 담임 이홍규 목사 외 교우 일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322-33 담임 이홍규 목사 (웨신 부총회장) hp 02)845-3376, 848-3376, 017-711-3376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담임 정일량 목사 외 교우 일동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02-19층 담임 정일량 목사 hp 032)812-7773, 010-4274-3330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hp 033)541-0687, 010-7405-9191 www.1004m.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담임 오상렬 목사 외 교우 일동 (330-03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45-10 담임 오상렬 목사 hp 041)564-7004, 041)551-3553, hp 010-6410-0091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신학대학원 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훈련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 장악력 ● 웨스턴신학대학원 학장 ● 사도복음주의 목회자 ● 세계선교인 선교회 회장
●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 국제사도교단협의회 총재 ● 전원종교협의회 담임목사 ●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사 준비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신학교학과			
	상담학과			
	기독교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인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대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 교수(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김용진 교수 : (Ph.D)(美)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장광용 교수(고대근동학) : (Ph.D)(德)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임철환 교수(교회학) : (Ph.D)(美)School of Bible Seminary
 장창수 교수(원형) : (D.D)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정철성 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권영철 교수(변증학) : (Th.D, Cand.) 서울대학교 대학원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박광보 교수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마호인 교수(교회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 교수(목회상담학) : (Th.D.Cand.)長老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 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안병상 교수(교회학)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 교수(교회음악) : (D.S.M, Cand)(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Charles H. McVty 객원교수(성경신학) : (D.Lit)(蘇)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rew Joo 객원교수(실천신학) : (D.Min)(加)Christian College
 Rondo Thomas 객원교수(조직신학) : (D-CO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웨신(총회)경천노회 176회 성노회 개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천노회가 지난 12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52번지 은광교회(이원석 목사) 본당에서 제176회 춘계 성노회를 개최해 회부에 들어가 모든 사안들을 처리했다. 노회장 김종국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정재경 목사의 기도과 부회의록 서기 김영중 목사가 성경 요한복음 3:22-30절을 봉독, 김 노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증경노회장 장창윤 목사의 집례로 성전예식이 이성룡 목사 기도로 시작되었다. 집례자는 마태복음 26:26-28절을 중심으로 “인악의 증인들”이란 말씀을 전하고 전승욱 목사(회의록서기), 이종식 목사(부회의록서기)등이 분별, 분산 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경천노회 176회 정기노회가 노회장 김종국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서기 정재경 목사가 회원명에서 과반수이상 참석하였음을 보고하자 노회장은 개회를 선언, 회무처리에 들어가 절차에 의해 이원석 목사를 공로목사로 추대



▲예배 후 회무처리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노회장 김종국 목사

하고 신안건 토의를 끝으로 제176회 춘계 성노회가 폐회됐다.

은광교회 이원석 목사

성역46년 공로목사 추대

『정창원 장로, 유분순 권사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천노회(노회장 김종국 목사)는 12일(화)오후 2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은광교회에서 이원석 목사(74)를 원로, 공로목사로 추대하고 장로, 권사 취임감사예배를 동시에 드렸다.

노회장 김종국 목사 집례로 진행된 예배에 심재호 목사(증경노회장)가 기도를,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시편 23편 1~6절을 주제로 “여호와와 목자상”이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재경 목사(서기)가 원로 및 공로목사로 추대된 이원석 목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김종국 목사(노회장)는 추대사에서 이원석 목사는 은광교회 목회와 본 노회 안에서 성실히 교회를 목양했으며, 노회의 모든 일에 성실성의 다해 헌신하였으며, 노회원의 모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제 은광교회와 본 노회는 각각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로 추대한다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원석 목사는 은광교회 원로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 공로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원로 및 공로목사로 추대된 이원석 목사

이원석 목사, 그는 선지생도를 위하여 신학교 강단을 떠나님이 주신 일터로 천직으로 알고 후학도를 위하여 헌신해 왔다. 그런가운데 1980년 3월 22일 지금의 은광교회를 설립하여 목양일념에 31년을 몸바쳐 왔다. 솜한 눈물과 땀방울로 두 무릎을 꿇었던 은광교회 예배강단, 이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젊은 목회자 김주현 목사를 후임으로 이원석 원로목사는 4월 30일(토)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 원로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와 합병하기 전, 경기노회에서 40년을 헌신 봉사를 다해 온 가운데 합병 후 경천노회에서 5년간을 본 노회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웨신총회 경천노회는 지난 3월10일 청원인(김종국, 장창윤, 강보선, 심재호, 조득용, 강형식, 전승욱 목사)의 공로목사 허락 청원서에 의하여 헌법(정지 제5장 제4조 목사의 정호 4항)공로목사로 인정, 노회는 그 공로(功勞)를 기념, 노회원 투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이원석 목사가 공로목사의 명예직이 이루어졌다.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김홍수 목사가 축사를, 노회장 김종국 목사는 이원석 원로목사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어진 3부 장로, 권사 취임식에서는 정창원씨가 장로로, 유분순씨는 권사로 취임하였으며, 강보선 목사(증경노회장)가 권면에 나섰다. 이어 취임패 증정과 기념품이 전달되고 이원석 원로목사의 답사와 김주현 담임목사의 인사 및 광고 있는 후 최광선 목사(증경노회장)축도로 마쳤다.

이날 성역 46년을 마감하는

총기총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에배

화합과 화목한 정신으로 충남도 기독교연합회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정성을 다 할 것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총기총)는 지난 3월4일 당진 신평감리교회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갖고 김용술 목사를 제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4월 4일(월) 오전 11시 충남 당진 금천리 신평감리교회 본당에서 담임 김용술 목사가 총기총 제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감사에배를 드렸다.

유원용 목사(서산 기연회 회장 / 대신순복음교회)사회로 1부 이취임감사에배가 시작되어, 윤학희 목사(부여군 기연회회장/부여중앙성결교회)가 기도를, 최정희 목사(총기총 서기 / 갈산장로교회)가 롬14:8절 말씀을 봉독하고, 당진 신평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염신형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증흥교회)는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제2부 이취임식은 김수홍 목사(총기총 사무총장 / 온양시온교회)사회로 내빈소개가 이어지고, 공주중앙교회 전감재 목사(직전 대표회장)의 이임사가 있었다. 유성재 목사는 취임 대표회장 소개(분회 회계 / 천안복의근원교회)가 있었으며, 대표회장 김용술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어 공로패 전달과 강일남 목사가 격려사를, 김종민 충남부지사, 김낙성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이철환 당진군수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이취임한 전감재 목사, 김용술 목사에게 총기총연합회, 당진 신평교회에서 마련한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어 총기총 직전대표회장 전감재 목사는 충남기독교연합회 교회 전회부를 발행하고 출판기념식을 가진 자리에서 권주



▲대표회장 김용술 목사 내외

만 장로(CBS본부장/천은교회)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이성수 목사(총기총연합회 고문 / 천안하늘샘교회)축도로 마쳤다.

총기총 대표회장 김효술 목사(신평감리교회)는 취임사에서 충남에는 28,800여 교회 36만의 성도들과 함께 함께 재임기간 중에 몇 가지의 계획과 포부를 밝히면서 1) 충남에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화합과 화목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충남도 기독교연합회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정성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2) 충남도를 위시해서 각 시군 기관들과 본 연합회가 서로 협력

해서 살기 좋은 충남 발전과 건설에 앞장 서 가겠다면서 다만 잘못된 정책이나, 민심을 거슬리는 일

이 있다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본 연합회에서 단호하게 평정어린 충언



▲총기총 대표회장 김용술 목사 취임예배

부활

예수다시 사셨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저지스티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예복교회 예배 시간표

- | | | |
|--------------------|------------|------------|
| ■ 주일낮예배 | ■ 주일저녁예배 | ■ 구역장교육 |
| 유 치 부 : 주일오전 9:00 | 주일오후 7:00 | 수요일후 9:00 |
| 유·초등부 : 주일오전 11:00 | ■ 수요일밤예배 | ■ 십자가도회 |
| 중·고등부 : 주일오후 3:30 | 수요일후 8:00 | 매일오후 10:00 |
| 청년대학부 : 주일오후 2:00 | ■ 금요일아기도 | |
| | 금요일후 10:00 |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 우)139-75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6번지
☎교회 : 02)3391-9676(대) H.P 010-5267-1434